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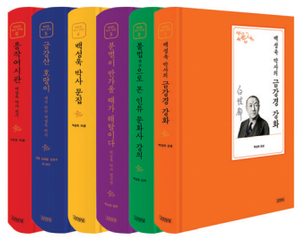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7	어리둥절 깨달음	고정해	운주사
3	잠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스님	모네정원	8	눈먼보리와 도둑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4	반야심경 마음공부	페이융	유노북스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5	붓다 중도로 살다	도법 스님	불광	10	인생수업	법륜 스님	휴

책세상

"공부는 꾸준히 하되 허덕허덕 바쁘게 하지 말라"





백성욱박사 전집 세트〈전 6권〉

백성욱 지음/김강유, 김원수, 이광옥 편

김영사 펴냄/144,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백성욱 박사**는?

1897년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서 출생했다. 만 3세에 아버지를 여읜 데 이어, 9세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정릉 봉국사서 행자 생활을 시작, 13세에 최하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전국 주요 사찰의 불교전문강원서 8년에 걸쳐 공부하다, 1917년(20세)에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1일, 한용운 스님 명을 받아 중앙학림 학생들을 인솔해 탑골공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1921년(24세)에 충정공 민영환의 아들 범식·장식 형제의 지원을 받아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프랑스 북부 보베의 고등학교서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를 공부했다. 이듬해,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의대서 공부하던 이미륵을 만나 철학과 한스 마이어 교수를 소개 받았으며, 뷔르츠부르크대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 1923년 가을부터 마이어 교수 지도로 〈불교순전철학(佛敎純全哲學)〉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매진했고, 이듬해 9월에 인준 받았다.

1925년(28세) 9월 귀국해 신문과 잡지에 시와 논문, 에세이 등을 기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법회에 나서는 등 불교 혁신 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1929년(32세) 늦여름, 불교전수학교(구 불교중앙학림) 교수직 등 모든 걸 내려놓고 금강산에 입산, 장안사 보덕암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수행 중 혜정 손석재 선생 권유로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에 함께 가서 100일 기도 정진했으며, 1930년부터 장안사 안양암서 1일1식 하며 〈대방광불화엄경〉 염송 수행을 시작했다.

안양암 3년 정진 중 깨달은 바가 있어, 장안사 지장암서 손혜정 선생과 함께 근대 최초의 수행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며 회중수도(會衆修道)를 시작했다. 조국 독립을 기도하고, 〈대방광불화엄경〉을 염송하면서, 7년여 동안 5백여 제자를 지도했다. 1938년(41세) 4월, 지장암 수도 중에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돼 경남 의령경찰서로 연행돼, 50여 일간 취조 받다가 석방됐으나, 일제의 압력으로 하산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돈암동과 치악산 상원사 동굴서 정진 수도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애국단체인 중앙공작대를 조직하고 민중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 시절 인연이 있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건국운동에 참여했으며, 1950년(53세) 제4대 내무부장관, 1951년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했다. 1953년 7월, 부산 피난 중 동국대 제2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동국대서 물러나게 된 1961년 7월까지 서울 중구 필동에 대학교 교사를 건립하고 동국대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강삼매경론〉 〈화엄경〉 〈인류 문화사〉 등을 강의했으며, 〈고려대장경〉 영인 작업에 착수, 총 48권의 현대식 영인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1981년 8월 19일(음력), 출생일과 같은 날, 84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백성욱 박사 전집(전6권)〉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존재한 백성욱 박사의 글과 말씀, 강의를 새롭게 수집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말씀이 기록된 릴 테이프를 수차례 재청취하고 다듬어 강의와 법문을 정리했고, 역사 자료와 도서관 문헌 등을 추적 발굴해 읽기 쉽게 편집 수록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강의에 없던 내용은 괄호와 주석 속에 추가 보강했다.

이외에도 기사 편지 메모 녹음 영상 출판물 등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및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그동안 잘못 알려진채 인용되던 내용도 수정 보강했다.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다 정확하게 연보와 생애를 구성하고, 생생한 법문과 학인들의 수행기를 통해 백성욱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방향을 명확하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총 여섯 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1권: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강화=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이 돋보이는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해설서. 1959년 동국대 강의를 바탕으로, 문도들의 사가서 설한 추가 강의까지 정리해 함께 실었다.

△제2권:불법으로 본 인류문화사 강의=불교 관점서 인류와 세계, 문화와 역사를 파헤친 인문학 특강.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53~1961)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20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제3권: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백성욱 박사 법문집)=백성욱 박사의 말씀과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한 법문집. 학인과 대중을 상대로 남긴 말씀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9장으로 나누어 실었고, 지인과 학인이 전하는 일화도 담았다.

△제4권:백성욱 박사 문집=백성욱 박사가 직접 쓴 논문·시·에세이·편지·법문 등 글 모음집.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순전철학을 포함해, 〈불교〉 〈동광〉 〈동아일보〉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 글을 모았다.

△제5권:금강산 호랑이(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시인 교육자 학자 정치인 종교인 문화계 인사 등 스물둘 명사와 학인들이 백성욱 박사 진면목을 밝힌 회고록. 백성욱 박사와의 일화, 소사에서의 생활, 열반에 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제6권:응작여시관(백성욱 박사 전기)=백성욱 박사의 지인과 제자 학인들의 회고, 각종 기록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세계를 담았다. 편지와 논문, 시와 에세이, 주요 강의와 법문 등을 집약해 정리한 백성욱 박사에 대한 최초 본격 전기이다. 한 권으로 맛보는 백성욱 박사의 문장과 말씀, 일대기와 가르침이 들어있다.

근현대 선지식 백성욱 전집 6권 출간
〈금강경〉과 인류문화사 강의 등 수록
저자와의 일화, 소사, 열반까지 담겨
2년 9개월 동안 저자 모든 것 총망라

이번 〈백성욱 박사 전집〉 출판으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백성욱 박사의 출생과 성장, 청년기의 독립운동, 유럽 유학 시절, 금강산 수도 시절, 동국대 진흥을 비롯한 사회활동, 소사 백성목장 시절 등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인 백성욱을 일컫는 말은 다양하고 특별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연구 및 기록은 많지 않다. 또한 대중적으로도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가 강설한 〈금강경 강화〉, 제자들이 전하는 일화와 법문 일부가 책으로 엮여 있고, 불교학 연구자들이 그의 금강산 수도 시절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백성욱 박사 전집〉은 2019년 1월 백성욱 박사 제자인 김강유가 백성욱 박사와 인연 있던 분들을 수소문하고 연락해 발행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례의 기획 회의와 재구성을 거쳐 윤문과 교정 보완했다. 1977년에 이광옥 김원수 김동규 등의 도반들과 함께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법문 녹취록 작업을 진행한 그는, 1993년 2월에는 '백성욱 선생님 송덕문집 간행위원회'를 만들어 백 박사와 인연 있던 명사와 학인들의 글을 '내가 만난 백성욱'이란 주제로 청탁해 받아 두기도 하였다.

〈백성욱 박사 전집〉에 담겨 있는 여러 인사들의 기억과 일화는 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소사 백성목장 시절, 그의 곁에서 수행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의 생생한 수도 생활 기록은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과 선지식으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백성욱 박사의 문집에 담겨 있는 편지는 당시 그의 형편과 시대적 상황, 내면의 진솔한 고백을 드러내 보인다. 백성욱 박사의 에세이와 강설은 이 세계의 실상과 존재의 참모습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법문집은 백성욱 박사가 그때그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설한 밝고 생생한 방편을 담고 있다.

저자인 백성욱 박사는 수행 방법을 물어온 어느 사찰의 학인에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마음을 바치는 공부법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썼다.

"'미륵존여래불(彌勒尊如來佛)'을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든 부처님께 바치도록 연습하십시오.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실행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직 이렇게 공부하시되 주의하실 일은 '공부하겠다' 하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이요, '공부가 잘된다' 하면 치심이니, 너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인은 "꾸준히 하되 허덕허덕 바쁘게 하지는 말라(斯可以綿綿 不可以勤勤)"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여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오로지 절대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치면, 이 세상은 그대로 낙원일 것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광복을 전후로 세상과 수행 양쪽에 전무후무한 자취를 남긴 백성욱 박사의 강의와 말씀, 글과 일화, 나아가 그 삶의 일대기는 그 활발발한 기상이나 헌신의 깊이만큼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의 기록들, 비범한 통찰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전집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독자에게도 의미 있는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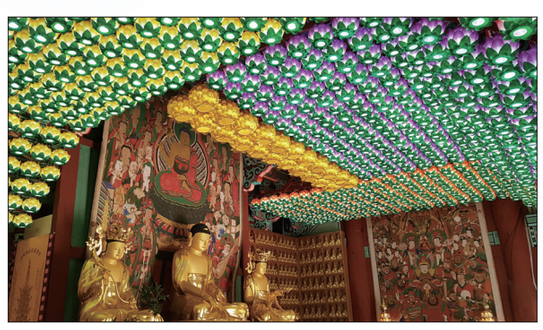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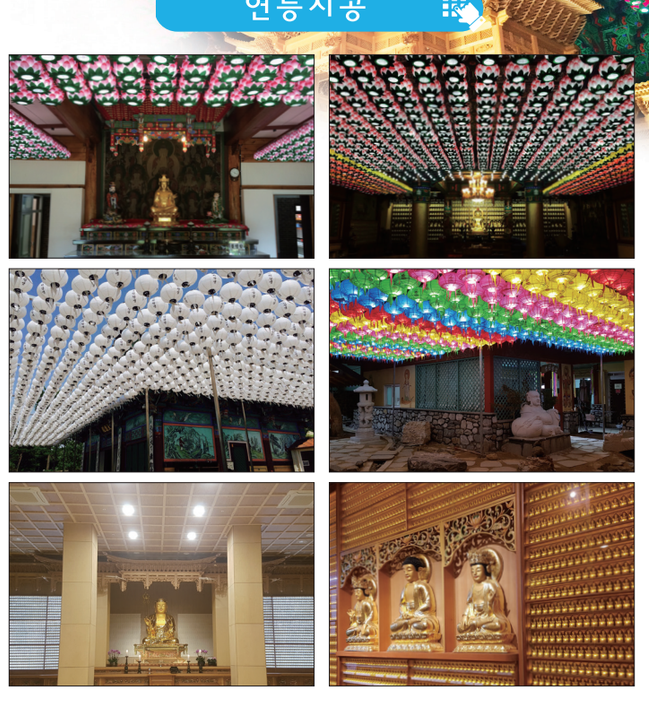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